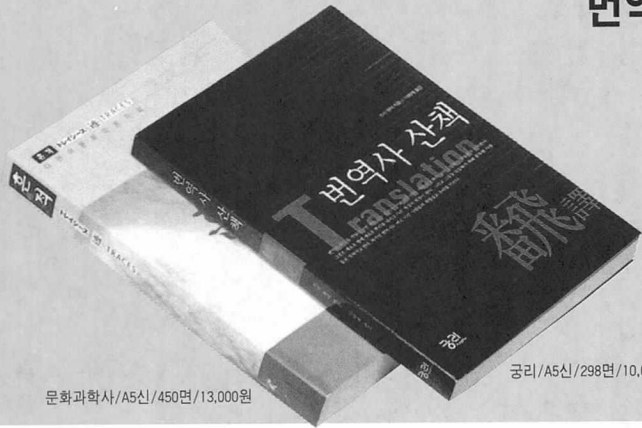


## '번역의 창'으로 들여다본 국제적 보편주의 정신

《번역사 산책》과 《흔적》



문화과학사/A5신/450면/13,000원

공리/A5신/298면/10,000원

최근 나란히 출간된 《번역사 산책》과 《흔적》은 번역을 통한 이질적 문화의 소통양식을 주제로 삼았다. 《번역사 산책》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번역의 역사와 번역가의 일화들을 흥미롭게 재구성한다. '다언어 문화이론 잡지'를 표방한 《흔적》은 지식의 형성과 전파과정에서 드러난 권력관계·지배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번역을 주제로 한 두권의 책이 나란히 나왔다. 쓰지 유미의 《번역사 산책》(이희재, 공리)과 나오키 사카이·유키코 하나와가 엮은 《흔적》(강내희 외, 문화과학)이 그것으로, 각각 이미 출간된 《번역과 일본의 근대》(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이산) 및 《미메시스》(열린책들)와 짝을 이룬다.

### 유럽 번역의 역사 아우른 문화사

《번역과 일본의 근대》가 번역이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탐구했다면, 《번역사 산책》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번역의 역사와 번역가의 일화를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 문화와 사상이 도입되면서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프랑스에서도 중세부터 르네상스기까지 번역에 의해 신조어가 탄생한 데서 알 수 있듯 번역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이 책은 단지 프랑스 번역사에 한정되지 않고 기원전의 이집트부터 중세의 아랍, 현대 유럽의 번역사까지 아우른 문화사라도 읽힌다. 지은이에 따르면 번역은 몇천년 전부터 인류의 보편적 행위였다. 번역의 초기상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영웅서사시 《길가메시》의 전파경로와 《성서》의 번역사에서 엿볼 수 있다.

번역은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하면서 유목민처럼 이동한다. 그리스 문화가 아랍어로 번역되고 이는 다시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된다. 번역의 전성기는 르네상스에서 꽃핀다. 유럽에서 16세기는 번역의 세기였다. 이 시대에 직업적 번역가가 출현하는데, 프랑수아 드 벨포레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몽테뉴도 번역서로 처녀출판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번역이라는 고난의 짐을 기꺼이 짊어졌던 작가들의 일화다. 알베르토 망구엘이 말했듯 “바람의 얼굴을 더듬거나 모래로 실을 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인 번역에 정열을 바친 이들은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었다. 시인 보들레르는 에드거 앨런 포를 프랑스에 최초로 소개했고, 프루스트는 러스킨의 저작을 번역했다.

“번역이란 말의 무게를 다는 것”이라고 말한 발레리 라르보는 어학의 달인이자 번역의 예찬자였다. 그는 영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독일어·라틴어에 능통했고, 제임스 조이스, 휘트먼 등을 프랑스에 소개했다. 특히

당시 숨어 있던 천재 작가 발굴에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했는데, 조이스의 《율리시즈》가 출간되기도 전에 프랑스 문단에서 인정받게 했다.

### 지식 전파과정의 권력관계 추적한 다언어 저널

《흔적》은 한국어를 비롯해 일본어·중국어·영어 등으로 발표되는 '다언어 문화이론 저널'이다. 지난 1999년에 창간호를 낸 《미메시스》가 국내의 번역 문화와 번역서 서평문화를 지향한다면, 《흔적》은 '문화이론 및 번역저널'을 표방한다. 자크 데리다, 스투어트 홀, 가라타니 고진 등 전세계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편집고문으로 참여해 지식의 형성·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지배관계를 밝힌다는 포부다.

이번 창간호에서 나오키 사카이는 “지난 몇 세기간의 식민주의 및 유사 식민주의의 결과로서 또는 북아메리카 혹은 서유럽의 '이론'에 대한 흥미로운 혼성적 대응의 형태로 나타나는, 다른 지역들에서 생산된 이론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이 《흔적》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창간호의 주제는 '서구의 유행과 번역의 정치'로, 인문학의 지식생산 과정에서 왜 아직도 '서구/기타'의 이분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번역이 어떻게 근대성의 의미를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창간호의 핵심은 제3부 〈번역과 근대성〉이다. 존 크라니어스커스는 〈번역과 문화횡단 작업〉에서 '문화횡단' 개념을 빌려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지역언어와 방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의 지배적 형태가 선택되고 가공돼 식민지 합병을 위한 언어가 됐는지 분석한다. 1980년대 중국 번역의 황금시대를 다룬 왕 샤오밍의 〈번역의 정치학〉은 당시 번역이 중국을 서구 사상으로 향하게 하고 비서구 사상의 자원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설명한다.

《번역사 산책》과 《흔적》은 단행본과 국제잡지라는 형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보편주의와 연대정신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이질적인 문화를 소통시키고자 한 번역가들의 열정과 문화적 우월주의를 넘어서 타자를 이해하는 관용의 태도를 열어가는 뜻이 두 책을 아우르는 정신이다. — 박천홍 기자